금주의 말씀

사도행전 10:9-33



심재권 목사
무기개침례교회 담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표현할 때 '한 영혼이 전히보다 더 귀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찾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기 전까지는 즐거움도 없고 밥맛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기만 하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 다 성공자요 축복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밖에 거하는 자는 모두 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실패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사랑하는 가족이 실패자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같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의 복음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비록 성령 충만했지만 오랫동안 굳어온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유대인의 규범을 뛰어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시어 유대인들의 규범을 깨뜨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9절 말씀에 이쁠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육시더라 제육시 기도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도 제구시 기도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룬 힘은 무엇일까요? 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껏 쓰임 받는 원천이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의 특색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표어는 한국교회 전체의 표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한국교회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하는 사람은 많지만 쓰임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삼겹줄의 기도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남이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도록 환상을 주셨습니다. 만약 고넬료에게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방인과 담을 쌓고 있는 베드로가 초청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에 대해 철저히 담을 쌓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업하시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고넬료를 준비하셨고 베드로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베드로가 주는 교훈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들어서자마자 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는 그가 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교훈은 고넬료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리어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겸손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이고 베드로는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위치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엎드리어 절하며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흠이 없기 때문에 높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훌륭한 인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묻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들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순종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족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친구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어 복음 확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04. 산 제물로 드리라(로마서 12:1~21)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율법시대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준비된 제물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다. 제물은 제사장이 잡아 제사 드리지만 기져다 바치는 것은 그 제물의 임자다. 이 제물 임자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 자격, 그리고 관계를 하나님께 일임한다. 여기서 제사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에 따라 기져다 바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벧전 2:5). 그리스도께서 그의 특유한 제사드림에 있어서 그랬듯이 우리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제물이다. 구약시대에는 속죄 제물도 있었고 화목 제물도 있었다. 단번에 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속죄 제물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우링 인격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화목 제물과 같은 것이다. 바친다는 말에는 자발적인 행위의 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지가 몸과 지체에 대해서 행사는 독단적인 절대적 힘을 다 행사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유의사에 따르는 제물이어야 한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종교전쟁(19)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1945년에 발간한 책,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무제한의 관용은 불관용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관용의 역설"을 피력했다.

칼 포퍼(Karl Popper)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1945)》은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서 출간된 정치철학의 고전이다. 포퍼는 이 책에서 사회를 '닫힌사회(Closed Society)'와 '열린사회(Open Society)'로 구분하고,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거대 역사철학(역사주의)이 어떻게 전체주의의 복재와 자유의 짐탈을 정당화했는지 비판한다.

《닫힌사회(Closed Society)》는 종족주의(Tribalism), 집단주의, 절대적 가치 및 도덕에 대한 맹목적 신봉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사회 제도는 '자연법칙'이나 '신적 질서'처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 민족 등의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된다.

열린사회(Open Society)는 개인주의, 비판적 합리주의, 자유민주주의로 특징 지을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사회이다. 또한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비판의 자유와 정권 교체의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삶는다.

전체주의 사상이 어떻게 개인의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말살하는지, 포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역사주의(Historicism)와 운명론을 통한 개인의 무력화 : 역사주의는 역사가 일정한 법칙과 필연적 목적(Teleology)을 따라 진행된다고 믿는 사상이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신들이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을 집행하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적 선택, 정치적 자율성, 신앙의 자유는 "역사적 발전 단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탄압을 정당화한다.

②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Utopian Social Engineering)의 위험성 : 포퍼는 사회 개혁을 정사진에 맞추어 통째로 재구성하려는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을 강하게 비판한다. 지도자나 집권 세력이 단 하나의 절대적 '이상(Ideal)'을 설정하고 사회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절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파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인된 이상과 배치되는 양심·종교의 자유 역시 용납하지 않게 된다. 포퍼는 대신 '점진적 사회 공학(Piecemeal Social Engineering)'을 통해 구체적인 문행과 불평등을 하나씩 교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③ 전체주의적 '신앙에 의한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박탈 : 닫힌사회의 지도자나 전체주의 국가(예: 나치즘, 스탈린주의)는 그 자체가 일종의 세속 종교(Secular Religion) 역할을 한다. 국가나 이념(Ideology)이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되어, 개인적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는 국가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종교는 국가 이념에 종속되고, 자유민주주의 핵심적 가치인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소멸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핵심 원리》

포퍼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철학적·제도적 관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① 비판적 합리주의와 ② 관용의 역설의 철학적 관점과 ③ 지도자가 아닌 제도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관점이 합력하여 ④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① 비판적 합리주의 (Critical Rationalism)

포퍼의 핵심 철학으로,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지만, 노력을 통해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태도이다.

② 관용의 역설 (Paradox of Tolerance)

포퍼는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의 파멸을 부른다고 경고한다.

관용을 표방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자유와 관용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불관용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 · 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란입니다.

교회 상가건물 매매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82번길(상가 4층)
• 면적 : 대지 62평, 건평 13평
1층 – 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2층 – 교회 / 3층 – 조경 사무실 / 4층 – 사택
• 금액 : 5억8천(조정가능) • 고회비 무무료로 드림(리모델링가능)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지시설, 타운증가능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음
010-4154-7945

교회 임대
• 위치 : 나주시 빛가람로 746(S타워 3층 303호)
• 면적 : 155.71(47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원 / 월 55만원
※기타 : 시설비는 전혀 부담 없도록함
(냉난방 시스템 및 준비완료)
※위치 좋음, 모든 성물 상태 최고로 양호함
010-2888-4353

교회 임대(반지하)
• 위치 :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 71평
• 금액 : 보증금 5백만 / 월 50만원
※시설 권리금 있음
※비품은 없는 상태임
010-8430-5515

교회당 임대
• 위치 : 동구 필문대로 142 /2층
• 면적 : 35평
• 금액 : 보증금 300만/월45만
※비품대 있음 ※시설 완비
※조정가능
010-2738-7277

교회당 매매
• 위치 : 광산구 수완동 1243, 1244
• 면적 : 대지 166평
건축면적 204평 3층
• 금액 : 23억
※태양광 6K / 도시가스
※이전으로 인해 매매합니다.
010-6206-7042

교회임대
• 위치 : 임방울대로 142-10(삼성빌딩4층)
• 면적 : 82평 / 바로 사역가능
–교회, 유아실, 서재, 교육관, 교제실
※각 방 에어컨 설치 ※올 리모델링
※상가분리사용(타업종)가능
• 금액 : 보3천만/월120만원 or 보5천/월100만원
※월세 조정가능 ※사택가능
010-5514-1158

수양관 급매
• 위치 : 장성군 북일면 솔재로
(고창석정온천, 편백숲 5분거리)
• 면적 : 1200평
–교회 3층 –휴게실, 숙소 3층
–단독 2채 –저온창고, 정자
• 금액 : 상담후 결정
010-7924-8291

교회임대
• 위치 : 북구 서방로 172번길 10-7, 2층
• 면적 : 20평
• 금액 : 보증금 300만원 / 월 25만원
※주차장 있음
010-6254-8462

교회매매
• 위치 : 북구 연양로7번길 51-31
• 면적 : 대지 132평, 도로 15평
1층–예배당 35평
2층–사택 37.5평
• 금액 : 9억3천만원 (증축가능 / 조정가능)
010-7653-8337

예배당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사암로(대로변)
※우산동, 소촌동, 산촌동이 교차하는 큰 사거리 인근
• 면적 : 대지 121평,연건평 110평
1층–60평(사택,식당,교육관)
2층–50평(예배당, 120~150석)
• 금액 : 8억4천만원
010-2679-4934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 중 이중 유아실, 방송실
• 금액 : 7억원
※리모델링(친환경 황토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중흥동 806-13(2층)
안보회관 건너편
• 면적 : 35평
• 금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군왕로 159-1 / 2층
• 면적 : 40평
• 금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권리금 있음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건물매매
• 위치 :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곡사거리
보광주유제국 옆–(전철2호선 일곡사거리역 옆)
• 면적 : 대지–72평, 건평–110평
1층 주택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별도)
(1층 주택과 교육관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됨)
2층 교회 본당 40평
3층 유아실, 방송실 15평 (입자가 대형 철골 증탕)
• 금액 : 건물 및 교회 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